

“개학 연기에 커지는 교육 공백... 대책 있나”

교육청 코로나19 대응 보고
도의회 교육위 집중 질의
온라인 학습 이용률 저조
선거교육 차질 등 우려도
제주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두곤 의견 엇갈려



김창식

오대익

부공남

김장영

강충룡

오는 4월 6일로 한 달 넘게 미뤄진 새 학기에 학교 밖 학습·생활 지도 공백, 선거교육 차질 등의 우려가 겹치면서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38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현안 보고를 받고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김창식(교육의원, 제주도 서부) 의원은 개학 전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학습 참여가 저조한 문제를 꺼냈다.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 경우 제주e학습터를 활용해 온라인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전체 초중생의 52.3%에 그친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e학습터에 가입해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답입교사가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오대익(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의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은 입학식도 하지 않았는데 입학을 한 거나 다름 없게 됐다”며 “교사를 통한 일일 안전 확인과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학 연기에 만 18세 고3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사전 준비에 대한 요구도 커

지고 있다. 예정된 4월 개학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선거(4월 15일)까진 열흘도 채 남지 않는 탓이다.

부공남(교육의원, 제주도 동부) 의원은 “참정권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적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불법 선거운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개학 이후 집중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개학 이후가 더 큰 문제다. 그런 만큼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장영(교육의원, 제주도 중부)

의원은 “학교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급식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도 갖춰 감염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주 내로 영역별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검토하는 공론화 추진 과정에 대한 현안 보고도 이뤄졌다. 그 필요성을 두곤 의원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강충룡(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의원은 “(도교육청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기 전에 외교 학부모, 동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빠졌다”며 “2015년 외교 일반고 전환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 도교육청이 신제주권에 고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한 핑계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서귀포시 성산을 내수면 독방길 인근에 조성된 목재데크 시설이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부서진 안전시설 두달 넘게 ‘그대로’

성산 내수면 독방길 설치된 목재데크 파손 장기간 방치
성산읍 “내달 시설물 정비”

서귀포시 성산을 내수면 독방길에 설치된 목재데크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는 보도(본보 1월 15일자 5면) 이후에도 두 달이 넘도록 해당 데크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산을 내수면은 주변에 광치기해변과 성산일출봉, 올레길이 소재해 있는 데다 최근 유채꽃이 해안변을 따라 만개하는 등 봄철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지만, 파손된 시설물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본보 보도 이후 최근 찾은 서귀포시 성산을 내수면 일대, 내수면을 따라 조성된 목재데크시설은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난간 손잡이가 부러져 있는가 하면 난간 자체가 통째로 뚫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었

다. 이에 자칫 파손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데크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탐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날 독방길에서 만난 관광객 강모(25)씨는 “관광지에 대한 행정의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며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성산읍은 오는 4월부터 지역내 해안변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성산읍은 올해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해안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3월 현재까지 정비가 필요한 해안변 시설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오는 4월부터는 수요조사를 마친 뒤 정비 및 보수 공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독방길에 파손돼 있는 목재데크 시설도 보수가 이뤄질 계획이다.

성산읍 관계자는 “지역내 해안변에 설치된 정자, 데크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수·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오징어 말리는 풍경에 이야기꽃 핀 가족 18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포구에서 한 가족 관광객이 오징어 말리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어린이집 휴원 연장돼도 돌봄 서비스 유지”

아동 37% 긴급보육 이용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오는 4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기존 돌봄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긴급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방식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진행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17일 기준 긴급보육을 이용한 아동은 8412명으로 현원(2만2587명)의 37% 수준이다.

또한 휴원 명령 기간 동안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고 있으며, 무급휴가를 받는 보호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도(1인당 1일 5만원·최대 10일)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긴급보육 과정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 9900만원을 투입,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선관위 “만18세 유권자 선거교육 동영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개학일이 4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학교방문 선거교육을 취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선거교육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도선관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도내 1700여명의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일 전 방문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동영상 자료는 유권자의 의미, 선거과정,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영상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https://youtu.be/U1logx2nyFZw)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교육교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돼 있다.

고대로그기자

서귀포시, 문화유산 기초자료 정비 추진

서귀포시는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으로 나뉘어 제작됐던 문화유산 자료를 처음으로 통합해 보존상태 등을 조사한다. 또 문화유산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

화자원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자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향토유산은 서귀포시에서 신청(소유자가 있을 경우 동의를 거쳐)하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재와 달리 주변의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제도적으로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다.

이태윤기자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